
		보 도 자 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
		배포일자	2021년 12월 15일(수) 총 3매	 환경특활시 인천
담당 부서	가족다문화과	담당자	• 외국인생활지원담당 최윤선 ☎440-2801 • 담당자 신현규 ☎440-2083	
사진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인천시, 내년부터 외국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
 - 24일까지 공개 모집, 화합공존의 외국인 친화도시 인천 만들기 목표 -
 - 전문기관의 위탁 운영을 통해 전문상담인력 확보,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추진 -

인천시가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의 전문성을 담보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민간위탁을 추진한다.

인천광역시는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(이하 외국인지원센터)의 운영수탁기관을 오는 2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.

인천국제교류재단 해산 후 2016년부터 외국인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해 온 인천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‘화합·공존의 외국인 친화도시 인천 만들기’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.

전문기관의 위탁 운영을 통해 △외국인주민을 위한 전문상담인력 확보 △외국인주민 대상 교육·프로그램·행사 △관내 외국인주민 자생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.

위탁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으로 인천에 주요 사무소를 둔 있는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만이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. 신청서 접수는 12월 23일 10시부터 24일 18시까지 2일간 인천시청 가족다문화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.

시는 접수된 단체의 경영상태, 사업계획,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.

공모 자격 및 신청에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.

조진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“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는 인천 거주외국인주민과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존을 주도하는 공간이 될 것”이라며 “이번 수탁기관 공모에 외국인주민을 위한 전문상담, 교육과 각종 프로그램·행사에 전문성이 있는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” 라고 말했다.

한편 외국인지원센터는 지난 9월 행정안전부의 ‘2021년도 외국인주민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사업 공모’에 선정된 바 있다.

내년 1월부터 3월까지 기존건물 3층 일부에서 8층 전 층으로 센터 확장이전이 진행되며 여기에는 1억 9,100만원(국비 9,550만원)의 사업비가 투입된다.

현재 외국인지원센터(남동구 예술로192번길 40, 3층)는 코로나19 사회

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전화상담 및 비대면 온라인 한국어교실만 운영 중이며 확장 이전을 통해 외국인주민과 지역주민이 상생하고 지역사회 정착에 도움을 주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될 전망이다.



<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입구 사진 >